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2020. 3월

Vol.1

모음

세계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Vol.1

I 세계는 지금 | 정책 동향

- 5 1. 문화예술 : 미국, 벨기에, 캐나다, 홍콩
- 8 2. 문화산업 : 일본, 중국, 브라질
- 10 3. 문화재 : 일본, 이집트, 인도
- 12 4. 체육 : 일본
- 13 5. 관광 :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태국, 폴란드
- 15 6. 문화체육관광통계 : 싱가포르, 스페인

II 세계는 지금 | 이슈 동향

- 18 1. 영국 : 브렉시트가 영국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 22 2. 미국 : 아프리카에서 한국과 협력하라
- 27 3. 코로나19 경제적 여파에 취약한 국가들

III 이달의 담론 | 이집트

- 32 '아랍의 봄'과 '이집트 2030'

IV What's on KCC abroad | 재외한국문화원 3월 활동계획

- 41 아시아, 미주

I

세계는 지금 정책 동향

- 1 문화예술 : 미국, 벨기에, 캐나다, 홍콩
- 2 문화산업 : 일본, 중국, 브라질
- 3 문화재 : 일본, 이집트, 인도
- 4 체육 : 일본
- 5 관광 :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태국, 폴란드
- 6 문화체육관광통계 : 싱가포르, 스페인

1. 문화예술

미국, NEA 예산 역대 최대 벨기에, 문화예술 보조금 대폭 삭감

미국

2020년 미국국가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이하 NEA)예산, 역대 최대 기록¹

NEA의 전면적인 예산 삭감을 선언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NEA의 예산을 미 연방정부 역사상 가장 많은 1억 6천 2백만 달러로 책정했다. 예산 계획 시,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약 1천 2백만 달러 증액을 제시했으나, 최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7백만 달러 증가한 것에 그쳤다.

트럼프 고립주의 정책, 해외 예술가 유입 방해 우려²

미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 정책이 유능한 해외 예술가들의 비자 발급을 어렵게 해 이들의 미국 내 예술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잘 알려진 유명 멕시코 배우(Conchi Leon)조차도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 내 투어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미국 내 문화예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예술인 비자 발급 거부 대상 국가는 주로 라틴계열, 아프리카 국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

벨기에 플레미시 Jan Jambon 지방정부 총리(문화정책 총괄 겸임), 향후 4년간 문화관련 예산 총 6% 삭감 발표

플레미시 지방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벨기에 내 주요 7개 문화 예술기관³은 매년 총 3%의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

¹ 출처: Art Critique, 2020.1.2.

² 출처: The Hill, 2019.10.1.

³ KVS(Royal Flemish Theatre), Ancienne Belgique, Antwerpen Symphony Orchestra, Royal Ballet Flanders, de Singel, Vooruit, Concertgebouw Brugge & Vlaams Radiokoor

문화예술분야 <프로젝트 보조금> 예산 60% 삭감 예정

플레미시 지역과 브뤼셀 소재 극장, 음악, 예술센터 등이 운영하는 프로젝트 보조금⁴도 대폭 삭감된다. Jambon 총리는 “이번 예산 조정은 모든 예술가에게 당연히 문화예술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환상을 없애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능 있는 예술가를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벨기에 문화예술계는, 젊은 예술가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미래 예술 분야 발전을 위한 안전 조치가 없어졌다고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 집회에 나섰다.

캐나다

캐나다 도서관기록관(Library and Archives Canada, 이하 LAC⁵), 캐나다 원주민⁶ 문화와 언어 보존을 위해 230만 캐나다 달러 지원(2020.1.6.)

LAC는 First Nations, Inuit, Metis Nation의 31개 프로젝트를 위해 230만 캐나다 달러(약 한화 20억 5천만 원)지원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원주민의 유산을 보존해 미래세대가 원주민 문화와 언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LAC는 앞으로 the listen, Hear Our Voices Initiative⁷를 통해 기존 원주민 문화와 언어유산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유산 보존을 위한 기술과 자원 개발 등에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콩

홍콩 여가문화서비스부(LCSD)와 교육부(Education Bureau), 독서문화진흥 공동 캠페인

2018년 4월부터 독서증진 캠페인을 추진해 온 LCSD와 교육부는 공공 도서관 네트워크(HKPL, Hong Kong Public Libraries)를 활용한 2020년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독서문화진흥 사업은 우선 웹사이트「Reading is Joyful」구축으로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 출판물의 홍보 촉진과 독서 문화 진흥 파일럿 프로그램 추진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통한 지역 출판물 관련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작가 등을 초청하여 대규모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웃에서 만나는 독서(Joyful Reading at Your Neighbourhood: Library-on-Wheels)프로그램은 2020년 1월부터 특별히 디자인된 트럭이 지역사회를 방문해 전자책과 온라인 서비스 등을 홍보하고, 책 전시회 등의 행사를 운영한다. 그 외에도 LCSD와 교육부는 공공도서관의 리모델링, 독서증진을 위한 학교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국 내 독서문화진흥을 도모할 계획이다.

4 <프로젝트 보조금>이란 주로 예술기관, 극장, 개인 예술가들의 첫 번째 공연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의미

5 Library and Archives Canada: 캐나다 도서관기록관은 문화유산부 산하 차관급 기구로 2004년 국립 도서관과 기록관이 통합하여 기록 유산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으로 발족

6 캐나다 원주민: 유럽인들이 캐나다에 들어오기 전부터 살아왔던 First Nations, 유럽인과의 혼혈인 Metis Nation, 그리고 Inuit를 가리킴

7 the Listen, Hear Our Voices: Documentary Heritage Initiatives의 프로젝트 일부로, LAC에서 원주민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늘리고, 원주민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된 신규 사업. 원주민 단체, 개인 및 창작자들에게 그들의 기존 문화와 언어 기록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총 31개(2019-2020)임

2. 문화산업

일본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 사이의 고민

일본

도쿄도, e-스포츠 산업 지원을 위해 「도쿄 e-스포츠축제」 개최

도쿄도가 주최하는 「도쿄 e-스포츠 축제」가 1월11~12일에 도쿄 빅사이트(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됐다. 행사장에는 e-스포츠 경기 체험 공간과 관련 서비스 부스가 설치되어 많은 게임 팬들이 몰렸다. 행사에는 「전국고등학교 e스포츠 선수권」을 개최하는 서드 웨이브나 게임 사용에 적합한 스마트폰 「AQUOS zero2」을 개발한 샤프, 「e-sports 긴자 school」을 4월에 개교할 게임개발회사 코나미, 5G 기술로 게임업계의 혁신을 도모하는 일본 최대 통신사 NTT 동일본(2020.1.31. e-스포츠 전문회사 「NTTe-Sports」 설립) 등 도쿄도내 거점을 두고 있는 37개 기업이 참가했다. 도쿄도가 5,000만 엔 예산을 투입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 행사는 e-스포츠의 보급과 게임콘텐츠 관련 중소기업 지원, e-스포츠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카가와현 <인터넷·게임 의존증 대책에 관한 조례> 추진¹

어린이의 인터넷·게임 의존증 예방을 위해, 가정 내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인터넷·게임 의존증 대책에 관한 조례)가 일본 카가와현에서 광역단체 최초로 추진됐다. 조례 초안의 ‘어린이들의 스마트폰의 사용을 하루 60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공개되며 주민과 전문가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본 조례안은 현민을 대상으로 동 조례와 관련하여 의견을 공모한 후, 2월 현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출해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마다 케이조 카가와현 지사는 정례기자회견에서 “(의존증에 대해서)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회적 책무를 명확히 하며 “의존증상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개발과 상담지원뿐 아니라 의존증에 빠졌을 경우 증상의 진행과 재발을 예방하는 치료를 제공할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20일에 개최된 <제6회 카가와현의회 인터넷·게임

¹ 출처: 카가와현 홈페이지
‘정례기자회견’, 2020.1.16,
아사히신문, 2020.1.21.

의존증 대책에 관한 조례 검토위원회>에서 수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제18조에 '18세 미만의 인터넷·게임 의존증으로 이어지는 컴퓨터 게임의 이용에 대해 하루 이용시간 60분(휴일 90분)으로 상한을 두고,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해서는 중학생 이하는 오후 9시, 고등학생은 오후 10시 이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위반했을 경우 처벌에 대한 조항은 없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광전총국, TV방송 공공서비스 시스템 강화관련 의견 발표

2020년 1월 6일, 광전총국은 <TV방송 공공서비스 시스템 강화 관련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광전총국은 2025년까지 TV방송 공공서비스를 데이터, 고화질, 인터넷, 모바일 분야별 수준을 제고하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최신기술 응용을 가속화해 콘텐츠 생산·전파 방식의 개혁을 대대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브라질

파벨라(빈민가) 거주자들의 디지털문화콘텐츠 소비력, 1,198억 헤알(3,600억원)규모로 추산

브라질 경제관련 리서치 기관(Instituto Locomotiva)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파벨라(빈민가) 거주자들의 디지털문화콘텐츠 소비력이 약 1,198억 헤알(3,600억원)규모로 추산된다. 브라질 문화예술계에는 브라질 노동인구의 6%에 해당하는 5백만명 인구가 종사하고 있으며, '후아네(Rouanet) 법'을 통해 전체의 73%가 문화상품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문화부 장관인 Sergio Paulo Rouanet의 이름을 따 명명된 후아네법은 1991년부터 시행됐으며 "문화진흥후원법"으로 변경 추진됐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기 원하는 문화예술단체는 한 해 1천만 헤알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유산복원 프로젝트, 작은 도시 내 극장·영화관 건설, 박물관·오케스트라 같은 비영리 단체의 프로젝트, 대중 축제·도서전 계획은 프로젝트당 6백만 헤알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 대상 지원 정책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에 배포되는 티켓 수가 10% 수준에서 최대 40%로 늘어나고 저가로 판매해야 하는 티켓가격은 75에서 50헤알로 낮춰질 예정이다.

3. 문화재

자국 문화의 기록과 보존을 위한 중장기 계획 추진중

일본

문화청, 세계유산 및 국보 문화재 방화대책 5개년 계획 수립 (2020년~2024년)

일본 문화청은 세계유산 및 국보 등 건조물문화재의 방화대책 강화를 목적으로 향후 5년간의 방재대책을 수립했다. 일본의 세계유산인 오키나와 슈리성 화재와 파리 노트담 사원 화재가 정책수립의 계기가 되었는데, 일본 문화청은 문화재 방재를 통해 중요한 문화재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본 계획은 2020년도부터 5년간 일본내 세계유산과 국보를 대상으로 (1)스프링쿨러 등 초기소방대책 마련 (2)화재 확대방지 대책 확보 (3)노후화된 전기계통과 소화장비 개선을 목표로 하며, 문화재 소유자에게도 방재계획의 수립과 정기적 훈련, 야간 소화대세정비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집트

세계 최대 규모 이집트 대박물관 개관 예정

이집트 정부는 2006년부터 피라미드 지역 인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이집트 대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당초 2016년 완공이 목표였으나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칼레드 엘아니니 이집트 고대유물 관광부 장관은 '2020년 1월 기준, 공정이 90% 이상 마무리 되어, 2020년 4분기 개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집트 대박물관 측은 이미 356점의 유물을 기존 박물관에서 이동했으며, 이 중 투탕카멘왕의 보물 57점과 11점의 유물은 대박물관 그랜드 계단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

인도문화양성소(Indian Institute for Culture) 설립 계획

인도 정부는 기존 고고학양성소, 국가박물관연구소, 문화유산 보존연구소, 고고학 학교 등을 통합한 고고·박물관학 인재 양성소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고고학연구소 부지 내에 1년 과정, 단기과정과 학사, 석사 등의 학위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인도 고고학연구소(ASI) 예산 증액, 인더스 문명 문화유산 재건 사업 확장

인도 정부는 11개 문화유적지의 재건과 'Dharohar Darshan (문화유산 방문)' 기조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간 ASI 예산은 약 7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974.56크로루피에서 6,769크로루피, 약 9억 4천 달러 규모로 증액)

4. 체육

일본, 생활 속 소소한 스포츠 활동 장려

일본

스포츠청, 「스포츠 에이르 컴퍼니(Sports Yell Company : 체육응원기업), 정책

스포츠청은 근로자의 스포츠 활동을 촉진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스포츠 활동을 지원·촉진하는 기업을 「스포츠 에이르 컴퍼니(Sports Yell Company)」로 인증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533개의 회사가 동참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스포츠 활동 증진을 위해 아침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체조·스트레칭을 위한 운동 기회를 제공하거나 계단 이용, 도보·자전거 통근을 장려하고 스탠드 미팅의 실시 등 근로자가 몸을 자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Sport in Life 평생스포츠·체력만들기 전국회의 2020 개최

스포츠청이 2019년 7월에 발표한 「Sport in Life 프로젝트」는 많은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가 생활습관의 일부로 자리매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공공단체, 스포츠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이 하나가 되어 스포츠 진흥을 촉진해 나가는 프로젝트다. 전국대회는 2020년 2월 7일 시마네현 마츠에시에서 개최됐고, 올해는 특히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생동감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5. 관광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의 적극 도입

아르헨티나

관광수지 개선과 세수 증대를 위한 특별세금 도입¹

지난 마크리 정부는 정권 후반부에 외환 보유고 감소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외환시장 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새 정부도 지난해 12월 말 의회가 가결한 “포용과 구호를 위한 세금법”(Impuesto Para una Argentina Solidaria e Inclusiva)에 따라 해외관광상품 결제 시 특별세 30%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특별세금 30%는 저축용 외환 구매, 해외여행상품과 서비스 구매, 국제 항공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외화로 결제되는 온라인 서비스 등에 부과된다. 연방세입청(AFIP)이 2020년 1월 8일 조례 4569호를 통해 관련 세칙을 발표해 시행 중인데,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도 특별세가 부과되는 등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관광객 비자 면제 확대 시행 검토²

위스누타마(Wishnutama)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2016년부터 169개국 방문자에게 제공하던 무비자 제도의 확대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광창조경제부는 현재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외교부 장관과 비자 면제 확대 방안을 협의 중이며 앞으로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좀 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¹ 출처: 암비토 파이낸셜, 2020.1.8.일자

² 출처: Okezone, 2020.1.17.

태국

바트화 강세 지속에 외국인관광객 대상 보전책 검토³

태국 바트화가 2018년 12월 평균 대비 2019년 12월 평균 7.7% 평가절상을 보이고 이러한 지속적인 바트화 강세에 따라 태국 정부가 외국인관광객 약 280만명에 대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태국 내 국내선 항공권, 숙박, 식당 등에서 30,000바트 이상을 소비하면 1인당 최대 3,500바트의 캐시백을 돌려받도록 하는 방안이며 캐시백 금액은 연 1회 태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⁴

폴란드

‘폴란드 더 많이 보기 반값 주말’ 프로그램 실시⁵

폴란드 관광청은 성수기(여름·겨울)와 외국인 방문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연 2회(봄·가을) 호텔과 식당, 문화기관 등의 서비스를 절반 가격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폴란드 인터넷과 교통수단 등에 광고되며 폴란드 방문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개국⁶에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6천만 원 상당 홍보 예산)

³ 출처: 태국관광체육부 사이트, 2020.1.25.

⁴ 현재 태국 바트화는 아세안 여타국가보다 절상률이 큰 상황이다.

(필리핀 페소 3.8%, 인도네시아 루피아 3.3%, 싱가포르 달러 1.0%, 말레이시아 링깃 0.6%, 베트남 동 0.4% 각각 절상됨)

⁵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체코, 우크라이나, 리트비아, 슬로바키아, 벨라루스

⁶ 출처: Turystyka.rp.pl, 2020.1.8.

6. 문화예술관광통계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민, 문화활동 참여자수 역대 최고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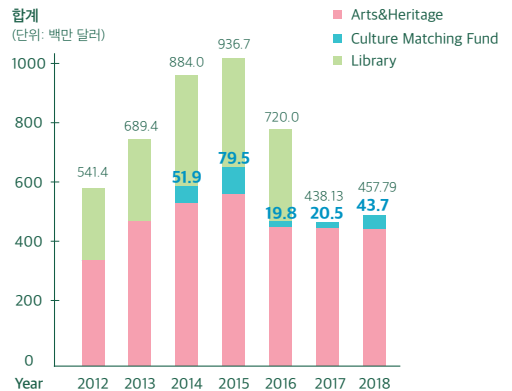
싱가포르 문화부는 “2019 싱가포르 문화통계(2019 Singapore Cultural Statistics)”(20.1.23. 발표) 집계 결과, 2018년 한 해 음악과 무용, 극장 등 문화활동 참여자 수가 13.6백만 명으로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밝혔다. 유료공연 참여자 수는 약 2.2백만 명으로 전년대비 약 15%가 증가했으나, 매출금액은 2015년 121백만 싱가포르 달러 기록 이후 2018년 96백만 싱가포르 달러로 지속 하향세를 보였다. 이는 공연시장 외형은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문화예술 기부를 장려하고자, 민간 후원 금액만큼 정부가 추가로 후원하는 Cultural Matching Fund를 운영 중인데, 그 실적이 43백만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20.5백만 싱가포르 달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 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연예술 유료관객 수

Year	유료관객
2012	2,062,124
2013	1,897,162
2014	1,876,922
2015	1,946,322
2016	1,812,697
2017	1,911,266
2018	2,195,014

출처: 2019 싱가포르 문화통계

싱가포르 문화예술 정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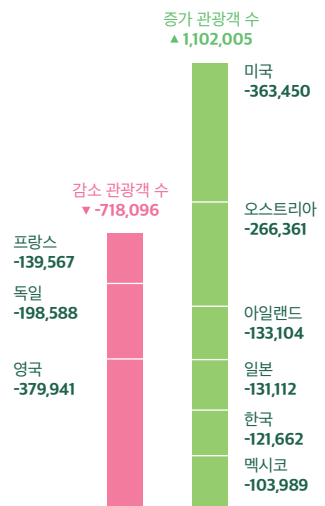
출처: 2019 싱가포르 문화통계

스페인

관광, 스페인 경제의 동력⁷

2017년 스페인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 수는 7,790만 명으로 2010년 대비 약 3,000만 명이 늘어 58.4% 증가하며 연 평균 약 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9년 관광객은 약 8,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Brexit, 경기 악화, Thomas Cook 파산 등의 악재가 향후 관광 부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은 전년도 대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국에서 오는 관광객 수가 7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신 미국(363,450명), 오스트리아(266,361명), 아일랜드(133,104명), 일본(131,112명), 한국(121,662명), 멕시코(103,989명) 관광객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1,102,005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대비 2019년 스페인 방문 관광객 국적별 증감 추이



⁷ 출처: El Pais 2020.1.19.

II

세계는 지금 이슈 동향

- 1 영국 : 브렉시트가 영국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 2 미국 : 아프리카에서 한국과 협력하라
- 3 코로나19 경제적 여파에 취약한 국가들

브렉시트가 영국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글 이정우
주영한국문화원장

지난 1월 31일 오후 11시(런던 현지시각) 영국은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했다. EU의 초석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합류한지 47년만이자,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52%의 찬성으로 EU 탈퇴를 결정한지 3년 반만의 일이다. 이에 영국은 EU 집행부와 산하기구에서 모두 탈퇴하게 되며, 영국 측 유럽의회 의원 73명에 대한 의원직 수행이 정지된다. EU 탈퇴 이후 영국의 미래는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할 것인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전망이 엇갈린다. 영국 문화예술계에 대한 전망 역시 마찬가지다. 장르마다 브렉시트를 마주하는 온도차가 다르며 아직은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기 보다는 연말로 예정된 전환기 협상추이를 관망하며 우려와 불만을 표출하는 시기이다. 이 글에서는 음악계 등 몇몇 장르를 중심으로 브렉시트에 따른 문화예술계 영향을 전망해 보며, 우리의 대응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클래식 음악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자. 런던은 헨델과 하이든 이후 세계 클래식 시장의 허브로서 클래식 음악의 ‘場’과 ‘網’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전환기 협상이 결렬되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비자 및 이종 과세 방지 등을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 요구는 아티스트들로 하여금 런던 대신 뉴욕과 베를린으로 무대를 옮기게 할 것이다. 런던의 클래식 음악시장은 하루 사이에 연주자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했을 만큼 낮은 개런티에도 대체자원이 풍부했다.¹ 유럽 연주자는 1-2시간이면 비행기나 유로스타로 런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브렉시트로 비자 발급절차가 까다로워지면 급작스런 대체 연주는 불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베를린 연주 다음날, 런던 공연을 하고, 다시 파리로 순회하는 연주가 빈번한 현실 속에서, 오케스트라 이동시 악기가 제시간에 통관을 거쳐 공연 예정 시간

¹ 한정호, 브렉시트와 영국 클래식 시장의 미래, 이코노미 조선, 2019년 3월 11일

전에 콘서트홀에 도착할지도 불확실하게 된다. 유럽연주자가 영국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지는 만큼, 영국 아티스트의 유럽 공연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2019년 영국의 오케스트라들은 총 201회 해외 연주 중 154회를 EU 역내에서 진행했고, 840만 파운드의 수익을 올렸다.² 하지만, 향후 유럽투어는 급격히 축소될 전망이다. 브렉시트로 런던에 본사를 둔 해리스 패럿, 아스코나스 홀트, 인터무지카 등 세계적 클래식 음악 전문 기획사의 영향력 감소는 불가피하다. 브렉시트가 가시화되면서 이곳 소속 매니저들이 따로 에이전시를 설립, 기존 아티스트를 데리고 유럽으로 옮겨가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유럽통합을 명분으로 40년 넘게 런던에 본부를 둔 EU 유스 오케스트라는 사무국을 2018년 이탈리아로 옮겼고, 유러피언 유니온 바로크 오케스트라는 2017년 5월 공연을 마지막으로 벨기에로 이전했다.³

둘째, 클래식과 달리 공공지원이 절대적인 무용계의 경우, 브렉시트로 인한 타격은 더욱 현실적이다. 실험적인 작품은 대부분 EU의 지원금과, EU 무용수들의 참여로 제작되었는데, 자원과 아티스트들이 빠져 나가면, 현대 무용의 산실이라는 명성은 퇴색할 것이다.⁴ 권위를 자랑하는 로얄오페라 역시 실험작 대신 기존의 인기작을 되풀이하는 운용이 불가피하다. 영국의 공연단체는 암묵적으로 예산의 1/3은 공적지원으로, 1/3은 민간기업 후원으로, 나머지 1/3은 입장권 수입금으로 충당해왔다. 공적지원만으로 운영될 경우, 실험작 등 예술을 위한 예술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지만, 1/3을 입장권 수입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예술성과 대중성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무용 등 영국의 공연단체들이 창의성과 함께, 대중의 지지를 받은 이유이다. EU가 중요한 몫을 했던 공적지원금이 삭감될 경우, 지속적으로 문화예산을 줄여왔던 보수당 정부가 이를 어느 정도 보전해 줄지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연단체는 입장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중 취향에 맞는 공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유럽 이외에서 협력 파트너를 찾게 될 가능성도 있다. 무용계와 달리, 브로드웨이와 함께 세계 뮤지컬시장을 선도하는 웨스트엔드는 브렉시트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2016년 국민투표이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급락했다. 파운드화 폭락으로 영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2014년 3,400만 명에서 2017년 3,900만 명으로 증가했고, 특히 웨스트엔드의 뮤지컬 전용 극장은 밀러드는 관객으로 호황을 겪고 있다. 2018년 런던에서만 946만 명의 관객이 뮤지컬을 관람했다.⁵ 영국이 절대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장르는 브렉시트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프랑스의 주도로 EU 지원제도가 완비된 영화·방송 등 시청각물 분야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EU는 역내 국가들의 공동제작, 배급, 인적교류, 교육 등 시청각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의 단계별로 광범위한 지원제도를 구비하였다. 상업영화든 예술영화든 지원 대상에 차별이 없다. 할리우드의 문화적 침략에 맞서 프랑스는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2 David Connett, The practical difficulties will be immense : How post-Brexit customs checks could impact orchestras and European tours, i news, 15 february 2020.

3 한정호, 브렉시트와 영국 클래식 시장의 미래, 이코노미 조선, 2019년 3월 11일

4 한정호, 브렉시트와 영국 공연계 동향과 전망, 서울 무용센터 출 인, 2016년 7월 28일

5 <https://uktheatre.org/theatre-industry/news/2018-sales-data-released-uk-theatre-and-society-of-london-theatre/>

위해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를 강력 주창하였고, EU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은 강화 되었다.⁶ 창조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EU의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9,000만 파운드를 영국 단체에 지원 하였다. 특히 영화와 시청각물을 집중 지원하는 MEDIA (Mesures d'Encouragement pour le Développement de l'Industrie Audiovisuelle) 프로젝트의 경우, 2018년 영국영화계가 지원 받은 규모는 1,100만 파운드에 달한다.⁷ 영화계는 보수당 정부에게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정부 역시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영화계의 우려는 점차 커지는 실정이다. 다만, 다른 EU 국가와 달리 할리우드와 밀착된 영화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그 여파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혼재한다.



EU MEDIA (출처: European Commission)

EU와 영국정부간 전환기 협상 속에서, EU 회원국인 그리스는 19세기 영국외교관 토마스 엘긴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떼어가 영국박물관에 소장중인 대리석 조각 엘긴 마블스(Elgin Marbles) 반환을 협상 조건으로 내거는 등,⁸ 브렉시트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은 실로 광범위 하다. 앞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문화예술계는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보리스 존슨 수상은 “유럽연합에서 나와도 영국은 끄떡없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한다. 영국인은 역사상 첫 번째 브렉시트가 1534년 헨리 8세가 성공회를 창시, 유럽대륙을 지배하던 카톨릭 세력과 절연한 것이라 말한다. 그들은 헨리 8세와 그의 딸 엘리자베스 1세 당시 영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등장했음을 기억한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스탈린이 연합하여 유럽대륙 전체를 장악했을 때, 홀로 맞서 싸워 이긴 전통을 자랑스러워 한다. 보리스 존슨의 호언이 실현될 지 확실하진 않다. 하지만, 세계 문화예술 허브로서 영국의 장점이 브렉시트로 인해 단시간 내에 퇴색될 것 같지는 않다. 더구나 영국인은 창작보다 이를 비즈니스 모델화하여 수익성을 찾아내는 데 뛰어나다. 브렉시트 영향이 가시화 되면, 영국인은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아낼 것이고, 이는 우리 문화 예술계와의 협력을 한층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세계 최대의 클래식 축제인 런던 BBC 프롬스에 참여하는 유럽 오케스트라가 줄어든다면, 우리에게 너무 높기만 했던 문화가 낮아질 수 있다.

6 이정우, Analyse comparée des politiques cinématographiques française et coréennes: études de la formation et de la cristallisation de l'exception culturelle en France et en Corée, 파리정치대학 박사논문, 2003년 3월

7 Ales Jackman, UK film industry's star is rising, but we must ensure Brexit is not the final curtain, The Telegraph, 7 october 2019

8 Bruno Waterfield, Greece demands Elgin Marbles for EU trade deal, The Times, 19 February 2020

영국의 오케스트라들은 이제 EU 대신 아시아와 영연방 국가(The Commonwealth) 등에 대한 해외 공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작년 10월 세계적 지휘자 사이먼 래틀의 런던심포니와 예사 페카 살로넨의 런던필하모니아가 서울을 찾았다. 양국 간 빈번한 교류는 한국의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연과 영화 등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국의 공연단체는 유럽 아티스트들이 빠져나갈 빈자리를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에서 찾으려 한다. 뛰어난 기량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제대로 소개되지 못한 한국의 젊은 무용수들이 새들러스 웰스를 기반으로, 젊은 성악가들이 로얄 오페라 하우스를 통해 세계로 나설 기회가 커진다. 로얄 오페라 하우스는 그동안 신인 성악가 양성 프로그램인, 제트 파커 영 아티스트(Jette Parker Young Artist Programme)에 테너 박지민, 김건우, 베이스바리톤 길병민 등 한국인 인재를 꾸준히 인선했다. 재정적 측면의 파트너로서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는 갤러리와 아트 페어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해외 문화상품의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을 겪는 대표 장르 연극 분야에서도 런던의 Coronet 극장은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 극단적으로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 유럽시장을 전부 잃는다고 해도, 구매력 있는 영연방과 미국 예술시장에 대한 런던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다. 영국의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세계 문화예술의 허브' 영국과의 협력 사업에 보다 공세적으로 뛰어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제트 파커 영 아티스트(Jette Parker Young Artist Programme) (출처: 로얄오페라하우스)

참고문헌

- 한정호, 브렉시트와 영국 클래식 시장의 미래, 이코노미 조선, 2019년 3월 11일
- 한정호, 브렉시트와 영국 공연계 동향과 전망, 서울 무용센터 춤 인, 2016년 7월 28일
- Ales Jackman, UK film industry's star is rising, but we must ensure Brexit is not the final curtain, The Telegraph, 7 october 2019
- David Connett, The practical difficulties will be immense : How post-Brexit customs checks could impact orchestras and European tours, i news, 15 february 2020
- Ian Youngs, What would Brexit mean for the UK's creative talent?, BBC news, 31 May 2018
- Bruno Waterfield, Greece demands Elgin Marbles for EU trade deal, The Times, 19 February 2020

미국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한국과 협력하라

본 내용은 해외문화홍보원의 “해외 싱크탱크 보고서 이슈브리핑 제4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블로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전하는 한국의 역할

원제 South Korea's Evolving Role in sub-Saharan Africa ('20.1.2.)

발행 CSIS(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저자 Emilia Columbo(에밀리아 콜롬보)

링크 <https://www.csis.org/analysis/south-koreas-evolving-role-sub-saharan-africa>

한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청년, 기술, 기업가 정신에 맞춰 진출할 계획이며 미국이 한국과 손을 잡는다면, 아프리카 기업·교육·인프라 구축에서 동반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하길 바라고 있다. 한국은 아프리카 지역 관련 정책을 규정하고, 아프리카의 기존 및 신규 파트너국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 한국의 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가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본 저자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대표해 제2회 서울아프리카대화에 참석한 바 있다. 올해 학술회의는 ‘아프리카 통합: 유산과 새로운 지평(Africa's Integration: Legacies and New Horizons, *참고. 공식 한국어명칭: 아프리카 통합 노력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됐다. 외교부 산하 한·아프리카재단이

주관했으며, 재단은 한국과 아프리카 민간 부문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 인구, 경제, 안보 동향 등에 대한 통찰을 학계 인사, 전문가, 외교관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파트너국의 경제 발전을 돕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회의의 주제를 보면, 한국이 아프리카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여정이 어디쯤에 놓여있는지 엿볼 수 있다. 먼저, 제목의 “유산(Legacy)”을 살펴보자. 노무현 대통령 (2003~2008년) 재임 당시 한국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재편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천명했고, 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아프리카 순방에 나섰다. 후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각각 아프리카를 순방했다. 이번 회의의 마지막 패널 토의에서 영국, 미국, 중국, 터키 등의 아프리카 협력 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는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들 국가의 과거와 현 사례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위해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을 뜻한다.

이제, 제목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살펴보자. 이는 이번 회의의 핵심이다. 외교부 장관이 최근 가나,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방문한 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아프리카 관련 정책 마련 움직임은 천천히 이뤄졌다. 이번 서울 아프리카대화를 보면, 문 대통령이 청년, 기술, 기업을 정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관점으로 아프리카에 다가서려고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번 회의에 앞서 한·아프리카재단은 한·아프리카 청년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아프리카 스타트업에 대한 패널 토의가 진행됐고, 아프리카와 한국 청년 사업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아프리카에 442곳 이상의 기술 육성 허브가 존재하고 있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형 IT기업이 이미 이러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창업자 지원을 중요한 잠재 협력 전략으로 삼고 있다. 또한, 한·아프리카재단은 포럼에서

아프리카 대학생들을 오후 시간대에 배정해 이들이 자신의 연구를 전문가와 동료에게 선보여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은 아프리카 청년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재계와 정계 리더로 성장할 이들과 초기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도를 드러낸다.

문제는 아프리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기존 파트너국이 아프리카 내 한국의 영향력 강화에 도움이 될 지, 아니면 방해가 될 지 여부이다. 기존 파트너국은 한국의 자리를 환영할 것인가 아니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인가? 해외 각국이 아프리카를 투자와 교역의 새로운 기회로 보면서 아프리카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는 테러리즘, 범죄, 전염병, 불법 이민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위협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 증가는 아프리카 각국 정부와 미국 등 기존 파트너국에 있어 기회인 동시에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에서 청년, 기업가 정신 등이 미국의 목표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미국은 한국을 '자연스러운 동맹(natural ally)'이자 책임을 공유할 잠재적인 파트너로 여기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 특히, 미국은 아래 언급되는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1. 기업가 지원

한국과 미국은 정부 및 민간 경로를 통해 아프리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관련 아프리카 기관을 도와 사업가 정신을 배양하는 정책을 구축할 수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최대 1,200만 명의 아프리카 청년이 매년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단 31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면서 IT 분야 등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진로가 실업과 불완전 고용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에 적절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한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민간 부문 협력 확대를 자국의 아프리카 전략의 핵심 구성요소로 삼았다.

2. 젊은 세대에 대한 기술 교육

한국과 미국은 비정부 기구 및 급성장하는 아프리카 IT기업들과 협력이 가능한 다수의 민간 부문 리더들이 포진해 있어 인터넷 접근성 및 기술 문해력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프리카 청년들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스타트업 자금 확보를 모색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차세대 리더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업계 대형 기업들도 아이들이 조기 코딩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향후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를 비롯해 아이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 도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미 국무부는 미국-아프리카 대학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 미 대학의 전략을 활용해 연구, 상업화, 기술이전,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한다.

3. 인프라 구축

한국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자국의 경험을 살려 IT 등 앞서 언급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는 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미국과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2018년 7월,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는 ‘운송 및 통신 분야 개발사업(Connect Africa Initiative)’을 출범해 아프리카 내 교통, 통신, 가치사슬 등 지원 사업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8년 10월, 미 의회는 미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 설립을 위한 ‘개발을 위한 투자 활용 개선 법안(BUILD·빌드)’을 통과시켰다. 미 국제개발금융공사는 최대 600억 달러의 투자금을 저소득·중소득 국가 등 신흥 시장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지난해 6월 미국무역개발청(USTDA)은 '엑세스 아프리카(Access Africa)'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내 양질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정부, 그리고 관련 업계와 협력을 모색하기 적합하다.

미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파트너와 협력자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의 신규 정책 파트너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각자의 목표, 자원, 프로젝트 등에 대한 뜻을 모은다면, 한국과 미국, 아프리카 파트너국은 향후 10년간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CSIS(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미국의 국제 전략적 이슈를 연구하는 비당파적 싱크탱크로 美 펜실베이니아대학이 매해 실시하는 세계 싱크탱크 평가에서 미국 내 싱크탱크 랭킹 2위를 차지
- Emilia Columbo(에밀리아 콜롬보): 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아프리카프로그램 선임연구원

코로나19 경제적 여파에 취약한 국가들

본 내용은 해외문화홍보원의 “해외 싱크탱크 보고서 이슈브리핑 제7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원제 Economic Vulnerabilities to Health Pandemics: Which Countries Are Most Vulnerable to the Impact of Coronavirus (‘20.2.3.)

발행 (ODI) Sherillyn Raga, Dirk Willem te Velde

<https://set.odi.org/wp-content/uploads/2020/02/Economic-Vulnerability.pdf>

2020년 1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전염병은 저소득과 중간소득 국가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영국 해외개발 연구소(이하 ODI)는 이들 국가들의 전염병에 대한 경제적 취약성과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첫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해 중국과 경제적 연결고리가 강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받게 될 경제적 여파를 살펴봤으며,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항목		평가 자료
코로나 19의 영향		△확진자 수, △항공 운행 취소, △중국 관광객 입국금지 영향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여파	중국 교역국	△전체 상품 수출 대비 중국으로의 수출 비율 △전체 관광객 수 대비 중국 관광객의 비율 등
	중국 교역국 외	△GDP 대비 재화와 서비스 수출 비율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 수 등
경제회복력		△GDP 대비 재정수지 균형 비율 △GDP 대비 보건지 지출 비용 비율 등 평가 등

연구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문 4장(6~8쪽) 참고

I. 코로나19와 경제흐름

코로나19 발생 전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예측했다. 중국은 6.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3.5%의 성장률이 예상되었다. ODI는 2003년 글로벌 경제 성장에 0.1%(약 500억 ~1천억 달러)라는 제한적 영향을 끼쳤던 사스와 비교해 코로나19가 더 큰 경제적 여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 코로나19는 이웃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사스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가는 추세
- 사스 발병 시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공장들이 생산을 중단하는 사례 발생
- 코로나19의 치사율은 2~3%로 사스(약 10%)에 비해 낮으나, 확진자가 사스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전체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2019년 중국의 세계 GDP 점유 비중은 17%로 사스 당시(4.3%)에 비해 4배 규모

II. 경제적 여파 예측

코로나19로 인해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올해 중국 GDP의 1%, 세계 GDP의 0.4%만큼(약 3천 600억 달러)의 경제적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염병으로 인한 보건 문제를 비롯해 제조업체 생산 감소, 국제항공 운행 중단 등으로 중국의 경제적 활동이 둔화되고 국제 유가와 구리 가격 하락도 관찰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가들로는 필리핀, 베트남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8개국 중 6개국이 영향)가 꼽혔다. 간접적으로는 코로나19가 발병하지 않은 국가에도 경제적 여파가 있을 것이며, 특히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들이 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빈곤국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예를 들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코로나19 발병이 되지 않더라도 수출에서 40억 달러를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 투자, 관광 등의 경제적 채널을 통해 중국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국가들은 교역 비중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제적 관계를 맺는 국가들은 총 수출의 1/6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의 경우 90%까지 달하기도 한다.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가 중국의 경제 둔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으며,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도 중국 경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 역시 관광수입의 1/5 이상을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앙골라의 경우, 전체 수출의 60%, 관광업의 10%를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역하지 않는 국가들은 세계적으로 낮아진 상품 가격으로 호혜를 얻는 ‘제3국 효과’를 누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적 여유가 없거나 보건 지출이 낮은 국가들은 경제적 타격에 더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회복력이 낮은 국가로 에티오피아, 라오스, 파키스탄, 가나, 수단이 꼽혔다.

종합적으로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 카자흐스탄, 케냐, 캄보디아, 네팔 순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보이며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들은 중국 수요의 1% 하락으로 상품 수출에서 40억 달러, 관광 수출에서 6억 달러를 잃을 것으로 예측됐다.¹ 특히 유가 20%, 구리 가격 7%의 하락(2016년 11월 이후 최저)은 수출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이는 중국으로의 수출뿐만 아니라 타국으로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²

III. 정책 제언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저소득 국가들은 전염병 발병에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보건 측면에서 각 국의 전염병 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보건 정책 이행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경제적으로 각 국은 코로나19로 유발된 중국의 경제 둔화에 따른

1 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상품 수출에서 4억 2천만 달러, 관광에서 1천 600만 달러를 잃을 것으로 예측

2 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유가하락으로 수출에서 40억 달러를 잃을 것으로 예상

잠재적 파급효과에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이 '일대일로' 등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넓혀온 만큼, 중국의 경제 둔화 여파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크게 일어날 것이므로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환경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ODI, 해외개발연구소): 영국 해외개발연구소는 비정부.비당파 싱크탱크로, 국제개발 및 전 세계 인도주의 문제에 관해 연구하며, 美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발표한 싱크탱크 '국제개발 정책' 부문 순위에서 15위 차지
- Sherilyn Raga: 국제경제개발 분야 선임연구원. 지역경제통합, 통화 및 환율 정책, 경제 구조의 전환 등을 주로 연구
- Dirk Willem te Velde: 국제경제개발 분야 소장. 무역, 투자, 경제 구조의 전환 등을 주로 연구

III

이달의 담론

이집트,
중동과 아프리카
두 대륙과 문화를 잇다

아랍의 봄과 이집트 2030

글 윤서영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중동·아프리카 지역 통신원

매해 1월 말이 되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는 ‘국제 책 박람회(International Book Fair)’가 열린다. 이는 아랍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책 박람회일 뿐 아니라 아랍권 작가와 독자가 그 해의 아랍 문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장이기도 하다.



카이로 국제도서전 홍보물(출처: CIBF)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을 소프트파워라고 한다. 한 국가의 소프트파워가 곧 국가경쟁력의 결정적 요소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이러한 소프트파워는 사상의 전파, 문화 교류, 기술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책 박람회의 영향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동에서 이집트는 강력한 소프트파워를 과시해 왔다. 역사적으로 이슬람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의 몰락에 따른 공백을 1950년대 이집트의 ‘범아랍주의’가 뛰어 넘으며 이집트는 아랍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연결고리인 이집트는 그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프랑스, 터키(오스만 제국), 그리스, 이탈리아 등 강대국들의 침입과

동시에 다채로운 외래문화가 끊임없이 유입되어 왔으며 오래 전부터 교역과 문물 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이집트는 전체 인구의 90%가 무슬림이나 콥트 기독교(이집트 기독교 정교회)인도 10%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아랍 국가들과 달리 기독교 종교와 문화에 수용적인 편이다. 문화적으로 이집트는 영화, 드라마, 음악, 문학에 있어 아랍 대중문화의 중심지이자 아랍 학자, 예술가, 작가, 지식인층의 성지가 되어왔다. 이집트 소설가 나귀브 마흐푸즈(Naguib Mahfous)는 1988년 아랍권 작가 중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며, 1920년대 활동한 이집트 가수 움무 칼썸(Umm Kulthum)의 노래는 아직까지도 아랍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이집트의 영화, 출판, 음악 산업은 다른 아랍 국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추정되며, 인구 9,000만 명의 중동 최대 규모의 내수 시장과 다른 아랍 국가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는 인구가 이집트 문화 상품을 소비하고 있다. 또한 아랍 각국에서 방송되는 이집트 라디오 방송 덕분에 이집트의 독특한 아랍어 방언은 대부분의 아랍권 국가들에서 통하고 있다.

아랍 세계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이집트의 소프트 파워는 자국 뿐 아니라 아랍 각국의 종교 담론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를 포함하여 중동 지역 대부분의 국교인 이슬람은 종교적 가치와 세속적 규범을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종교가 단순한 신앙 체계를 넘어 인간 생활 전반을 포함하는 사회 규범과 가치 척도로 작용한다. 아랍 국가들의 문화 기저 중심에는 종교가 자리하며, 전 세계 무슬림들은 이집트의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며 이슬람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문화를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는 것이다. 2011년 '아랍의 봄'은 이집트의 정치 뿐 아니라 문화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11년 이후 문화부장관은 지속적으로 교체되었으며 거의 모든 신임 장관들이 새로운 문화의 시작을 알렸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은 국가 소프트파워에도 위협으로 작용했으며, 이집트 문화예술 분야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 변화의 첫 번째는 이집트 정부가 예술과 문화 사업을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움직임이다. 종교적 급진주의로 인한 정치·사회 분열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 정부는 예술 영역에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투영시켰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2015년 이집트 정부가 추진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등대 재건 사업이다.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중계지로 번영을 누리던 고대 이집트의 영화로운 시대를 상징한다.

둘째, 예술 부문에 대한 검열을 강화한 것이다. 정권에 대한 비판이 금기되어온 사회 분위기에 대변혁 후 정치적 혼란의 싹을 잘라 내고자 예술 작품과 표현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민간주도의 국제협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잦은 내각 변동으로 정부 협력 사업보다 외국 펀드를 받는 비영리 기관이 이집트의 국제 문화 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살라피나 무슬림 형제단을 제외한 이슬람 중추세력과 가까운 문화 전문가와 단체들은 인근 걸프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집트 비전2030(Egypt Vision 2030) (출처-Egypt Today)

현재 이집트의 구체적인 문화산업 정책은 지속가능한 국가개발 전략인 ‘이집트 2030(Egypt 2030)’의 방향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문화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이집트 정부는 자국의 역내 소프트파워를 문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국가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관광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출판, 음악, 영화, 연극, 문화유산 지원 △지방의 공공 도서관과 문화센터 확충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문화유산 보존과 보호 △문화산업의 인력 개발 등을 세부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한편 이집트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의 관계는 이집트의 일관적인 친 아랍 정책과 조금 방향을 달리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이집트의 최대 관심사는 나일강 수자원과 안보에 관한 것으로 이를 둘러싸고 양측의 관계는 번영과 후퇴를 거듭하여왔다. 나일강은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브룬디, 르완다, 에리트리아, 탄자니아, 콩고를 지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며, 이집트 담수의 94%의 원천이자 이집트 인구 94%가 나일강 유역에 살고 있는 만큼 이집트 외교 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어 왔다. 한편 지리적, 종교적 인접성과 테러, 분리 운동, 쿠데타 등 안보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소말리아, 지부티, 에리트리아 등 ‘아프리카의 빨’ 국가들과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에

국가들과의 관계는 이집트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다. 이집트는 이러한 대 아프리카 외교정책 기조 하에 군사,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를 지원해 왔다. 수에즈 운하 국유화와 이스라엘 전투의 승리로 이집트는 아프리카 식민 통치 해방의 상징이 되었으며, 'Voice of Africa'의 혁명 메시지와 군사 훈련 및 무기 제공으로 앙골라, 로데시아, 모잠비크, 남아공의 독립을 도왔다. 현재에도 이집트는 아프리카 연합(AU)의 가장 큰 공여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최근 나일강을 둘러싼 지역적 관심이 증가하고 새로운 경제협력의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이집트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가 활발해지고 있다. 2019년 이집트는 AU 의장국 지위를 수임하며, 이를 아프리카와의 연대를 재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아프리카와의 문화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9년 이집트 문화부는 문화 분야 전반에 걸쳐 약 110개의 아프리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는데, 여기에는 △이집트 예술 학교 장학금 지원 △아랍어 무료 강좌 제공 △아프리카 작품과 아프리카 역사 서적 무료 출판 △이집트 박물관과 예술 기관 내국인 자격으로 이용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아스완 국제 문화예술 축제, 카이로 국제 영화 축제, 아프리카 음악 축제, 아프리카 내셔널 컵(Africa National Cup) 등을 개최했으며, 이집트 대통령은 아프리카와 가장 인접한 이집트 남부 도시 아스완을 '아프리카 청년 수도(the Capital of African Youth)'로 명명하였다.



아스완, 아프리카 청년 수도 BI (출처-Egyptian Ministry of Youth and Sports)

한국은 1995년 이집트와 수교를 시작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교류를 시도하여왔다. 특히 한국 드라마(가을동화('04), 겨울연가('05), 대장금('06), 내이름은 김삼순('08), 별에서 온 그대('15) 등)가 이집트 국영방송에서 방영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음에 따라 2005년 아랍권에서는 최초로 아인샴스 대학에 한국어과가 문을 열었고, 2009년 동 대학 한국(어)학 석사과정이 개설되었다. 2012년부터는 이집트 국영 위성 TV방송에 한국어 초급강좌가 방송되고 있다. 양국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지자 2014년 10월, 주 이집트 한국 문화원이 개설되었는데, 이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각각 나이지리아와 터키를 이은 두번째 한국 문화원이다.

최근 한류는 드라마를 넘어 케이팝, 음식, 한국의 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이 삼성, 현대, LG 기아 등 우리기업의 첨단 제품으로 '선진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다른 서구 선진국과 다르게 '가족 중심주의 문화'를 지향하는 문화적 공통점이 지목된다. 또한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이집트 젊은 층, 특히 여성이 느끼는 사회적 억압을 대리 해소하게 한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2020년은 한국이 이집트와 수교 한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집트는 아랍의 심장이자 아프리카의 정치·군사적 기지요, 아랍 연맹 본부가 있는 동시에 아프리카 연합 의장국을 수임한, 중동-아프리카의 대륙과 문화를 잇는 다리이다. 우리에게도 중동,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전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무슬림 문화의 발산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집트 소프트파워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근원을 점검하고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정치경제문화적 혼란이 이집트 소프트파워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집트 문화 현황을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과의 문화 교류의 접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나일 강과 함께한 이집트인의 삶

글 김종도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일찍이 이집트는 나일 강을 중심으로 관개농업이 발달한 덕분에 독립된 지방도시인 노모스들이 세워지고 문명이 싹트게 되었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헤로도투스(Herodotus)는 '이집트는 나일 강의 선물이다'라고 했듯이 나일 강은 이집트인들의 삶 자체이다. 이 강은 늘 정기적으로 비옥한 부식토를 하류로 운반하여 풍요를 누리게 하였다. 고왕국시대의 삶을 그린 벽화의 고기와 곡식을 보면 알 수 있다. 나일 강의 길이는 무려 6855Km로 세계에서 아마존 강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강이다. 나일 강은 두 갈래로 백나일은 탄자니아에서 발원하며 청나일은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하여 이 두 강은 수단의 수도인 카르툼, 옴두르만, 카르툼 바하리의 교차점에서 만나 한 줄기의 강으로 이집트로 흘러들어간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 강을 통하여 신들을 만들어내었고 파라오를 탄생시켰다. 이집트인들은 자연에 순응해야하였기에 자연환경의 은혜와 재앙에 따라 삶의 스펙트럼에 다양한 신들을 각인시켰다. 파라오들은 이것을 적절히 이용하여 자신을 신의 대리인으로 자처하였다. 파라오들은 태양신(Ra)의 아들로 추앙받으며 살아서도 신, 죽어서도 신과 같은 존재로 대접받았다. 이런 결과로 거대한 피라미드 무덤이 만들어지고 미라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 강으로 인해 희노애락을 맛보았다. 시인 롱펠로우가 '나일 강을 향해하는 사람은 인내의 거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노래한 것을 보면 자연의 힘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옛날 이집트인들의 나일 강과 함께한 삶이 마냥 즐거웠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자연과의 공존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이집트인들의 삶의 지혜를 오늘날에도 나일 강 유역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IV

What's On KCC abroad

재외한국문화원 3월 활동계획

아시아 | 태국

미주 | 뉴욕, 멕시코, 브라질

* 다음 행사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국

○ ‘봄봄봄, 봄이 왔어요!’ <가제> 수묵화 전시 오프닝 (3.26. | 문화원)

- 한국 전통재료 및 기법 활용 동양화 전시, 한국화 워크숍을 연계하여 관람객 직접 체험시간 마련을 통한 한국 전통회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

미주

뉴욕



1 아시아위크 민화 특별전(출처: 주뉴욕한국문화원)

○ 뉴욕아시아위크 민화 특별전 (3.11~4.24 | 문화원 갤러리)

- 2020 뉴욕아시아위크 계기 특별전, 안성민 작가의 대표작품 전시

* 아티스트 토크 행사(3.17.)

특별전 연계, 작가 안성민 및 박물관 디렉터 피터강 초청 토크

멕시코

○ Kocu 페스티벌 및 수원-톨루카시 자매결연 기념 한국문화행사 홍보

- El Universal, Notimax 등 현지 11개 주요 매체, 5개 방송사 및 K-Magazine 등 친한 잡지사 초청하여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지원, 취재지원, 자료 제공 등 홍보활동 추진할 계획

브라질

○ 아름다운 한국 규방 공예 전시회 홍보

- 한국의 전통 수공예 문화를 브라질에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 및 워크숍 개최
- 주요 현지 매체 및 연합뉴스 KBS 등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및 홍보사진 등을 배포, 인터뷰 지원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2020년 3월 창간호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www.kocis.go.kr

발행일

2020년 3월 16일

발행인

김태훈

기획 및 편집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최경희, 조소영

www.kofice.or.kr

외부 집필진

김종도 |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윤서영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중동·아프리카 지역 통신원

이정우 | 주영한국문화원장

디자인

studio 213ho

www.213h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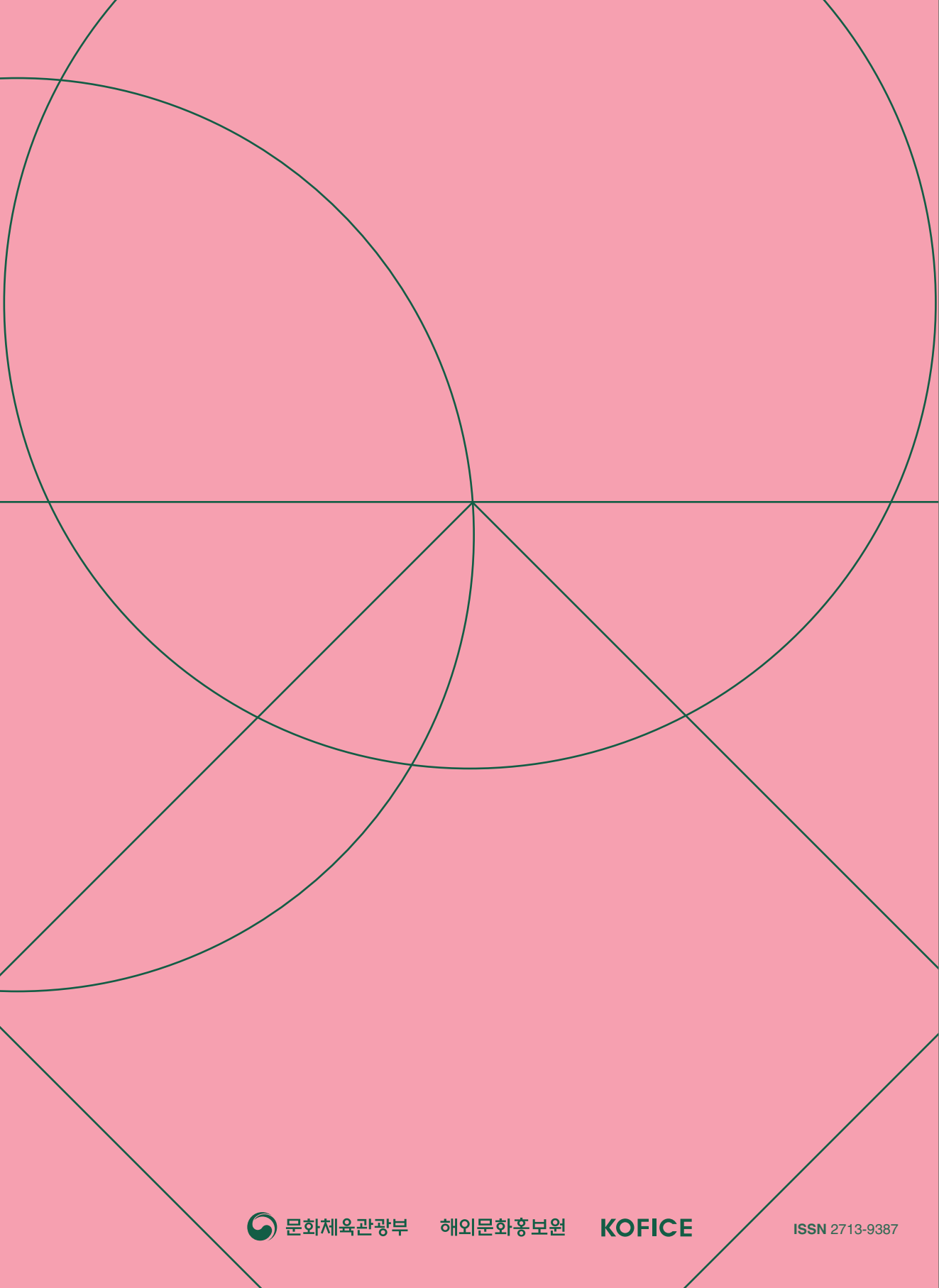
ISSN 2713-9387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

ISSN 2713-9387